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
: 제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Teaching Experience of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 Focused on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송 미 립

2021년 8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
: 제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Teaching Experience of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 Focused on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송 미 립

2021년 6월

송 미 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비형식교육기관으로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5
가. 비형식교육기관의 특징과 현황	5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유래와 전개과정	8
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현황	10
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14
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14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역할	16
3. 가르침의 의미	18
가. 교육 이론적 의미	19
나. 현상학적 의미	24
III. 연구방법	26
1. 현상학적 연구방법	26

2. 연구 참여자	26
가.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	26
나.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27
다. 연구 참여자 소개	28
3. 자료 수집	30
4. 자료 분석	31
IV. 연구결과	33
1. 가르침 경험의 맥락: “전문성 확보하기”	34
가. 전문성 형성하기	34
나. 다양한 가르침 경력 쌓기	37
다. 평생교육원 강사 유지하기	39
2. 가르침 경험의 내용: “소통을 통해 성장하기”	44
가. 학습자와 관계 맺기	44
나. 학습자의 성장 돕기	49
다. 전문성 신장하기	54
3. 가르침 경험의 의미: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기”	57
V. 논의 및 결론	61
1. 논의	61
2. 결론	63

2. 연구 참여자	26
가.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	26
나.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27
다. 연구 참여자 소개	28
3. 자료 수집	30
4. 자료 분석	31
IV. 연구결과	33
1. 가르침 경험의 맥락: “전문성 확보하기”	34
가. 전문성 형성하기	34
나. 다양한 가르침 경력 쌓기	37
다. 평생교육원 강사 유지하기	39
2. 가르침 경험의 내용: “소통을 통해 성장하기”	44
가. 학습자와 관계 맺기	44
나. 학습자의 성장 돕기	49
다. 전문성 신장하기	54
3. 가르침 경험의 의미: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기”	57
V. 논의 및 결론	61
1. 논의	61
2. 결론	63

참고 문헌	66
ABSTRACT	71

표 목 차

<표 II-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6
<표 II-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7
<표 II-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	11
<표 II-4> 2019년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 현황	12
<표 II-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제별 프로그램, 학습자 수	13
<표 II-6> 평생교육 담당강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18
<표 III-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지원 자격 요건	27
<표 III-2> 연구 참여자 선정	28
<표 III-3> 인터뷰 질문	30
<표 III-4> Moustakas의 자료 분석 절차	32
<표 IV-1> 주제 도출 내용	33

국 문 초 록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 : 제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송 미 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르침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어떤 맥락 속에서 가르침을 경험 하는가?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가르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사례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Moustakas의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된 주제를 묶어 3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을 형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형성되어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기관에 진입하고 나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위해 강의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하고 있었다. 또한

성장을 위해 자신의 경력 및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거나 새로운 학습으로 배움을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강사로써의 삶이 일상생활에도 연관되어 있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부 전공, 대학원, 자격증 취득,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형성하였고, 다른 기관 및 센터에서의 가르침 경험을 통해 강의 경력을 축적시켰다.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석 및 개발이 필요하였다.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획하고 교육방법, 강의 전달,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가르침 경험이 학습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서 자신의 경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강사의 성장이 곧 학습자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삶에 있어 가르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습자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며, 가르침과 배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습자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이 또 다른 학습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는 울타리 안팎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넘나들고 있으며, 학습자와 관계형성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에 대한 전문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사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강사, 가르침 경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증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참여하는 모든 교육을 말하며, 학습자는 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왔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사회를 지향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생에 걸쳐 계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자체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서보준, 서명환, 신성철, 2015).

평생교육에서의 배움과 학습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하거나 경력 개발, 자아실현 등 자신에게 맞는 학습으로 전환 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2019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에서는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3.4%로 2016년 35.7%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는 일과 학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이 갖는 학습의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은 대학의 평생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하여 기능 전환과 문호 개방에 주목하였고,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가 대학 평생교육을 이끌어내었다(최운실, 2004).

대학의 평생교육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더욱이 평생교육을 통해 기존의 대학 체제에 재정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적 봉사기능의 제고 또는 교육기회 및 학습권의 균등보장 등의 차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변정현, 2003). 그러므로 대학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성인학습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해야 한다(이존안, 2016).

대학이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방식을 통하여 교내 외에서 학점 및 비학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제공하여 성인들의 교육욕구 충족은 물론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이다(권인탁, 임영희, 2011). 이에 대학의 평생교육은 비형식평생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부설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의도적,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송창엽, 2017). 학습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가지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그 위상이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정립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2019년 415개 대학이 부설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 하였고, 817,505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강사는 13,717명, 프로그램은 26,282개로 구성되어 있다(평생교육백서, 201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평생교육원 강사는 학교교육 교사와 달리 실제 학습내용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김재은, 2017). 강사의 전문성과 교수능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다하더라도 교수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박경은, 2018).

따라서 평생교육원 강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해야 하며, 다양한 기관에서의 가르침 경험을 통해 강의 경력을 축적시켜야 한다. 평생교육원 강사의 전문성 형성과 가르침 경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의 교육 지속 여부,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강사는 개인 특성이 상이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습자를 대면해야 하고, 소속 기관의 요구와 개인적 목표를 절충하면서 교육에 임해야 한다. 결국 평생교육원 강사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스

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배은자,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숙원(2002)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된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학습자 개인요인과 기관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애련(2004)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학습참여가 성인학습자들에게 어떠한 학습 성과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인학습자 및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선정과 학습자 지도 등 평생교육기관 교육담당자 및 운영자들에게 평생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숙(2006)은 평생교육 교강사의 이미지와 강의력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육 만족도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교강사의 이미지보다 강의력이 수강생들이 인식하는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육 만족도와 효과에 강의준비 및 진행, 강의 내용 및 방법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연(2016)은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교수자 역량과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특성에 따른 평생교육교수자의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평생교육 교수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학습자의 실질적 교류가 이어지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박경은(2018)은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삶은 학습자의 성장도 중요시 하지만 본인의 성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쟁시장에서 타 강사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성장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박근미(2015)는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용보다는 교육서비스와 교수자, 접근성, 정보제공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황점희(2015)는 평생교육기관의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수자의 어떠한 학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며,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개념인 학습몰입에 대해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기관의 현황, 학습자의 참여지속, 참여 동기, 요구분석,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강사에 대해서는 역량과 자질, 교수행동,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가르침에 대한 연구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르침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원 강사는 전문성을 확보한 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6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가르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가르침 경험으로 학습자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 현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평생교육원 강사와 학습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 그 현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르침의 의미를 통해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방법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르침 경험이 평생교육원 강사와 학습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어떤 맥락 속에서 가르침을 경험 하는가?
-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가르치면서 무엇을 경험 하는가?
-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비형식교육기관으로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가. 비형식교육기관의 특징과 현황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평생학습의 개념이 확장하면서 학습은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무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은영, 김현진, 2014). 학교교육에서 형식교육을 경험했던 성인학습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형식, 무형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학습의 축적이 일어나며, 이는 성인학습자가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강훈, 한상훈, 구주형, 2016).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다(교육부, 2019). 비형식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대와 적절성은 학습자의 학습활동 참여정도나 학습 성과와도 관련된다. 학습자 스스로 선택한 비형식교육의 주제나 내용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의 필요점 등에 부합될 때,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습에 대한 관심의 변화나 인지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학습자는 지식을 얻고 배움의 의미를 새롭게 찾기도 하고, 새로운 학습이나 변화를 준비하기도 한다(강훈, 한상훈, 구주형, 2016). 따라서 학습자마다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이 다르고, 학습 능력수준도 상이하다. 그렇다면 비형식교육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고 참여목적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수업내용과 방법을 기대한다(권두승, 조아미, 2016).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비형식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한다.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개별 학습자마다 그 필요성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얼마만큼 충

족시켜주는가는 학습자의 학습참여나 학습행동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삶이 통합될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업방법과 관련해서도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수업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학습자의 능력이나 경험수준에 맞지 않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경우에도 학습자 참여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적 흥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실생활과 접목시켜 흥미를 유발하고, 적절한 속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신은경, 현영섭, 2019).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설립취지, 조직의 체계성과 교육적인 전문성 정도, 기관의 규모, 프로그램 실시 주체, 재정적인 안정, 영리성의 추구 유무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기준들은 나름대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송영경, 2015).

<표Ⅱ-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연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수	교강사 수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2015년	4,144	211,193	11,982,654	70,835
	2016년	4,153	212,339	11,336,564	73,204
	2017년	4,032	214,413	11,897,236	71,723
	2018년	4,169	216,980	16,344,658	72,783
	2019년	4,295	244,421	16,348,842	75,492

출처 : 교육부(2019 : 8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9년 4,295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51개가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수는 2019년 244,421개로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 수는 2019년 16,348,842명으로 기관수와 프로그램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급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의 증가 폭의 비해 학습자 수의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교강사 수는 2015년 70,835명에서 2019년 75,492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57명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표Ⅱ-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4,144	4,153	4,032	4,169	4,295
학교 부설	초중등학교 부설	9	6	5	6	7
	대학(원) 부설	403	406	412	412	415
	소계	412	412	417	418	422
원격형태		903	927	949	1,012	1,041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69	378	383	381	379
	산업체 부설	45	48	41	39	36
	소계	414	426	424	420	415
시민사회단체 부설		549	544	515	500	492
언론기관 부설		882	792	707	741	840
지식·인력개발 형태		626	608	579	586	595
평생 학습관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58	322	285	326	322
	지자체 설치	-	122	139	149	149
	소계	358	444	424	475	47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	17	17	17

출처 : 교육부(2019 : 8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017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9년 현재 4,295개로 전년 대비 3.0%p(126개)증가하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적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 부설은 2015년부터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 현재 기관수는 415개이다. 원격형태는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41개로 전체 평생교육기관 24.2%를 차지하고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증가는 원격형태,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 수 변화 추세와 연관된다(교육부, 2019).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유래와 전개과정

대학은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종합적인 교육기관이다(이숙원, 2002). 대학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이념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각 대학의 성립배경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대학개방, 대학확장, 대학성인교육, 성인고등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김애련, 2004).

미국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을 대학에서 성인교육을 제도적 교육영역으로 수용하여 대학개방 운동을 전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학이 전문적인 학술분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실제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탐구활동의 영역도 특정분야만을 고집하지 않고, 예술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의 확장을 추구한다. 학습의 대상자도 성인까지 포함하면서 대학에서 비전통적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송혜영, 2015).

1907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는 지역의 성인들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서 농업, 정치, 사회, 실제생활 등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15년 전국대학확장협의회(NUEA: National University Extension Association)을 구성하였다. 이후 많은 대학들이 대학확장사업을 시작하며 성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이 적극 전개되었고, 상승하는 학습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과정 프로그램 및 원격 학습 강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뉴욕 콜롬비아대학에서는 성인교육과가 설치되어 성인교육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현대의 미국 대학 성인교육의 형태는 학점취득과정과 비학점 과정으로 구성된다(조혜정, 2019).

1800년대부터 영국은 평생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학의 강의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873년 캠브릿지대학은 야간학교 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였고 이것은 대학확장 강의로 이어졌다. 캠브릿지대학을 시작으로 런던대학, 옥스퍼드대학에서 야간에 시민들을 위한 강좌 개방을 실시하며 평생교육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의 형태가 1907년 이후 성인학습자를 위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개별학습 및 토의와 강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을 교육하였다. 1969년에는 개방대학이 설립되어 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독립된 지위를 갖는 종합대학으로 당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던 사회에서 학습의 욕구를 지닌 모든 학습자들을 위해 기능하였다(조혜정, 2019).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은 엘리트층이 누리던 고등교육을 노동자, 농민, 여성, 노인 등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그 혜택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대학의 사회봉사적 목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교육소외계층에 그 혜택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사회교육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가 및 교양교육보다 전문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이 연구기능과 교수기능 외에 일반 성인을 위한 사회봉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확장교육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양을 증진시키고 자아개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김세진, 2010).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 12월 대구 계명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의 주부 시민대학 강좌와 1973년 신부대학강좌 개설을 효시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83년 9월에 사회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 되었고, 사회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일부의 대학에서는 영국대학의 교회교육부나 미국대학의 성인교육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등의 성인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대학 평생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김혜숙, 2008).

둘째, 1986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설립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평생교육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정복임, 2020). 평생교육법의 발달은 대학의 기능 및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되며 설립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박송이, 20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의 학위과정과 일반교양, 문화취미, 자격관련 전문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비학위과정의 형태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칭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사회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 사회교육개발원, 평생전문가교육원, 평생능력개발원, 예술융합(문화예술, 미래, 기독교, 글로벌 지식)평생교육원, 평생교육센터 등 대학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오석창, 20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교육적 측면과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 및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을 위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오늘날 대학은 학령기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지역에 대해 봉사적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정복임, 2019). 이에 따라 대학 평생교육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시설과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주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오석창, 2017).

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현황

오늘날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의 확장이 강조되면서 대학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서 기존 대학생들과 더불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김애련, 2004). 학습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자격 취득, 직업적 성장, 학위취득 등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매우 다양한 성과를 경험하게 된다(방희봉, 이은상, 박하진, 20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교육의 기능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학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정복임, 2019).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개방화·유연화를 이용한 평생학습은 자원이 효율적 활용 측면이나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평생교육이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대학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각 대학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협조하고 각 대학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홍미례, 2002).

<표Ⅱ-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로그램	28,066	28,884	27,688	25,971	26,282
학습자	824,011	902,600	882,884	839,631	817,505
교강사	15,206	15,033	15,562	14,381	13,717

출처 : 교육부(2019 : 73, 10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2016년까지 프로그램, 학습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2년 동안은 감소세를 보이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관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각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나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지식이나 사회적 관심사 및 대학의 여러 전공과목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들이 개설됨에 따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오석창, 20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수는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사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평생교육백서(2019)에서는 원격평생교육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의 증가로 보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사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전문성 높은 강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Ⅱ-4> 2019년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수	교강사 수
전 체	415	27,622	817,357	11,219
전문대학	131	3,956	150,695	1,929
교육대학	11	601	16,610	267
대학	207	21,906	589,710	8,229
방송통신대학	1	-	-	-
산업대학	3	28	960	16
원격 및 사이버대학	20	374	47,923	250
기능대학	6	26	460	21
대학원대학	32	581	8,953	482
전공대학	3	150	2,041	25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9 : 5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 및 사이버 대학, 기능대학, 대학원 대학, 전공대학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Ⅱ-4>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를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학이며, 그 다음이 전문대학이다.

<표Ⅱ-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제별 프로그램, 학습자 수

(단위 : 개, 명)

구분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프로그램	12,404	17	3,887	2,992	7,021	31
학습자(남)	134,960	163	35,488	34,102	125,173	553
학습자(여)	199,246	285	66,034	50,744	169,473	1,285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9, 62).

평생교육법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을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입학기준이 따로 없으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구분된 6개의 비형식 학습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학력 보완이다. 그리고 이들 영역 중에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은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 시민참여교육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성별에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다. 이것은 평일 오전, 오후시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대체로 가정주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일 야간, 토요일에는 자영업,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성별, 연령, 직업유무에 따라 학습자의 관심분야가 다르며, 평생교육 분야는 직업자격과정, 문화예술과정, 생활스포츠과정, 인문·교양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교육이라고 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통상 교사에 의해서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이 진행된다. 반면 학교교육에 비해 학습참여에 있어서의 자발성과 교육내용 측면에서의 다양성 및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는 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평생교육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지칭하고 있다(권대봉, 박지혜, 박진영, 유기용·현영섭, 2017).

평생교육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를 교육하는 자에 대한 용어도 성인교육지도자, 성인교육담당자, 성인교육자, 성인교육강사, 평생교육자, 평생교육담당자, 평생교육강사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다양성과 평생교육을 교수하는 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어 또한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김은임, 2017). 평생교육강사는 평생교육 현장이라는 장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운영, 평가하는 활동을 주로 담당하며, 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사람을 말한다(정주영, 2012).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교육자는 이론적으로 교육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제를 가르치는 교수자, 즉 강사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다(정민승, 2003).

권두승(2006)은 교수전문가, 공식적 권위자, 사회화의 매개자, 학습촉진자, 이상적 자아제공자, 인간적 인정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적 희열과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통계 조사에서 평생교육 교강사는 평생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맡아 온 내·외국인을 의미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이에 평생교육 담당 강사란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교수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다(이옥경, 2017).

대학 평생교육의 교육내용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지식, 기능, 태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된다. 성인학습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려고 한다(오석창, 2017).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강사는 평생교육이라는 학습공간 안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들의 역할 충실성, 전문성, 헌신에 따라 준비된 교육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강사의 역량은 성공적인 평생교육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은경, 2017).

그러나 평생교육원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 김영화와 전도근(2007)은 아직도 평생교육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부가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원 강사는 학력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 제한도 없고, 이렇다 할 정규 양성과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백서(2019)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평생교육원 강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원 강사는 교과 내용 전문가이지만 현재의 강사 양성체계에서 이들이 성인 및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양성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내용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평생교육원 강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질 관리는 강사의 교육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 및 직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사가 수행되어야 할 직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때 강사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김영화, 전도근, 2007).

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역할

평생교육원 강사는 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평생교육의 전문화와 함께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함께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증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평생교육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학교교육처럼 정해진 대상과 교육내용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 담당자인 평생교육원 강사이다(김지현, 2006).

평생교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사회경제적 배경, 학습에 대한 흥미 등이 각기 다른 다양한 학습대상자이므로 교수자도 다양하고, 그 학습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박경연, 2016).

평생교육원 강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위하여 강의 계획서 및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의의 질도 우수해야 하며, 학습자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 강사는 많은 학습자를 상대하는 직업이다. 다양한 특성을 보인 학습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그들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강사는 나름대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수학습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구주형, 2017)

박경연(2016)은 평생교육원 강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고무하고,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즉, 학습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내용전문가’란 당연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이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내용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학습관리자는 교수-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관리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공동학습자란 평생교육강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모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공동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정민승(2002)은 평생교육원 강사는 학습자의 삶의 장면을 읽어내고 일정한 방향으로 견인해 내는 것을 기본 소명으로 하며 학습에 대한 지원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학습자의 상황을 나름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사회 상황과 사건이 학습자의 삶의 국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지향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욕구를 해석하여 교육자와 기관의 방향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하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일이다. 배움이 그 다음 배움으로 연결되도록 학습의 연쇄 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배움의 관계를 이어가고 배움의 내용을 사회화하여 삶의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평생교육원 강사는 평생교육현장에서 가르침을 행하는 주체로서 평생교육전문가이다. 전문가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 노력, 훈련을 통해 최상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전문가라고 불리어지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의 능력과 기능수행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중요하게 인식된다(진경선, 2020).

평생교육원 강사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공지식과 교수기술,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태도를 총 동원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과정을 조장(황점희, 2015)하게 되며, 훌륭한 교강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자와의 교류를 유도할 줄 알며 학습자가 많은 질문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숙, 2006). <표Ⅱ-6>은 평생교육원 담당강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표 II -6> 평생교육 담당강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	주요 역할	특징적 기술
가르치는 전문가	그 분야의 정보, 개념, 관점을 전달	청취, 수업준비, 자료구성 및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
공식적인 권위자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의 설정	구조 및 우수성의 기준 정의, 행위평가
사회화의 매개자	수업차원을 넘어서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제시함,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준비시킴	특정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된 장점과 사회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함
학습 촉진자	학습자 스스로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함. 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줌	학습자들의 흥미나 기술에 대한 의식을 침체화시킴,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통찰력이나 문제해결책을 사용하게 함.
이상적 자아 제공자	주어진 분야의 기쁨과 지적탐구의 가치를 전달	교육적 자료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신념을 보여줌
인간적인 지도자	지적활동이나 관련이 있거나 지적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육구의 전체 영역을 보여줌, 인간으로서의 인정받고 학습자를 인정해줌.	눈앞의 과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냄, 학습자들도 또한 마음을 열정도로 신뢰성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줌.

출처 : 권두승(2006 : 239)

3. 가르침의 의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평생교육현장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강사들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전달하거나, 학습자의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점점 더 중요해가고 있다(박수연, 2001).

교수(teaching)의 사전적 의미로는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나, 교육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교수의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는데 있다. 즉, 학습자에게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나승일, 2004).

그렇다면 강사의 가르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방식의 이해와 접근이 있을 수 있는가? 접근 방식을 달리 할 때 가르치는 일은 사뭇 다르게 개념화 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이론만큼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르침의 의미도 달리 이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강사가 인식하는 가르침의 목적에 따라 가르침의 행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교육과 가르침의 목적에 따라 가르침에 접근한 이들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이한나, 2013).

Fenstermacher과 Soltis(1992)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원 강사 역시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강의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가르침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존재하며, 접근 방식 혹은 관점을 달리 할 때, 가르침의 의미는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생교육원 강사에 가르침의 관점에 따라 가르침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 교육 이론적 의미

가르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방식의 이해와 접근에 따라 가르침의 의미도 다르게 이해된다. 다양한 교육 이론만큼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르침에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지식형식의 입문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교육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다. 이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고대 희랍시대 이후 서양 교육의 전통 속에 들어 있는 교육의 이상(理想)을 나타낸다. 자유교육의 이상은 좁은 범위의 직업적 활동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유를 향유하고 이성을 계발하는 데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이한나, 2013, 재인용). 이를 Hirst나 Peters의 용어를 빌려 다시 말하며, 교육과 가르침의 이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시켜 합리적 마음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상을 위해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인 자유교과 혹은 인문교과를 교육의 내용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는 17세기 자연과학의 발달과 18세기 산업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문학 중심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확대되어 현대 교육 내용인 교과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교육은 교육의 이상 하에 교육의 내용을 정당화하였고 이는 교사의 가르침에도 적용된다(이한나, 2013).

자유교육적 접근에 있어서 교수자는 자유를 주는, 즉 학습자들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유식한, 합리적인, 도전적인 인간 존재, 즉 전인의 발달을 도모하는 사람이다(Fenstermacher, Soltis, 1992). 학습자는 지식만 갖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의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과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혹은 태도를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전통에 입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이한나, 2013).

자유교육적 접근의 특징은 구체적인 교수 기술이나 학습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보다는 교과 내용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 내용을 강조할 뿐 아니라 특별한 교수 목적도 갖는다. 일상 경험의 한계로부터 그리고 정형화된 인습의 천박성과 무기력으로부터 학생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Fenstermacher, Soltis, 1992).

자유교육적 접근의 핵심 사항인 교수자의 ‘자세’는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능이 과연 그들의 정신을 자유롭게 할 것인지 혹은 무미건조하고 관련성 없는 사실과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을 속박되고 말 것인지 여부는 대체로 교수자의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자세가 수업 내용에

일부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수자가 어떤 교과 내용을 전수할 때에는 늘 ‘그 교수자가 그 내용에 접근하고 그 내용을 다루는 방식’ 까지도 전수한다는 뜻이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하는 말이나 내주는 과제를 통해 배울 뿐 아니라, 교수자가 그러한 일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운다(Fenstermacher, Soltis, 1992).

따라서 학습자가 배우는 지식과 기능은 그러한 지식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자세에 따라 습득되어야만이 지식의 형식에 입문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자가 먼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이해하고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자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자유교육에 이상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합리적 마음의 발달이라는 이상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고도로 발달된 학문적 형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신중하게 활용함으로써 추론, 판단, 도덕적 행위를 잘 할 수 있는 학습자를 만들고자 한다. 가르침은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학문 탐구의 형식, 구조,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이한나, 2013).

2) 실천전통의 입문

실천전통의 교육관은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갈래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교육내용 선정의 주지주의적 편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인 ‘지식의 형식들’ 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인류의 다양한 실제적 실천전통들을 폭넓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목의 성격과 관련하여, 교과목을 가르칠 때 교육의 초점을 명제적 지식으로부터 그 명제가 만들어진 배후의 실천전통 자체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교과목의 성격을 명제 등의 특정한 부분적 요소로 파악하기 보다는, 실천전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즉 실천전통의 내적 가치, 명제, 정서, 기술, 역사, 덕 등 다양한 요소들의 입체적, 기능적, 유기적 통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홍은숙, 2007).

실천전통 교육관의 개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전통 교육관은 기본적으로 MacIntyre가 18세기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실천전통’이라는 개념을 원용한다. 즉, 도덕의 영역에서

개인의 이성만을 강조하고 전통을 무시한 결과, 사용되는 도덕 개념의 맥락이 상실되어 그 의미가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에 공감하여, 교육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한 맥락으로서의 실천전통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홍은숙(2007)은 MacIntyre의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실천전통 교육관의 의미를 ‘전통을 통해 개인의 총체적 삶을 형성하는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으로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때 전통의 공동선 추구를 하나의 교육목적으로 좀 더 강조하고 한다면 ‘사회의 전통과 개인의 총체적 삶을 위한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의 개념이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교과 선정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교육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실천전통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는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삶의 중요성에 비추어 즉 그것이 인간의 좋은 삶을 영위하는가에 비추어 실제적으로 결정되고 정당화된다(홍은숙, 2007).

실천전통 교육관은 다양한 실천전통에의 입문을 통해 개인의 공동체적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고 발전시키는 정체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교육은 전통의 서사적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서사적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교육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전통 속에서 발견하되, ‘살아 있는 전통’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홍은숙, 2007)

3) 의식화로서의 교육

해방교육론자들의 교육 목적은 피억압자들의 비판 의식을 높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브라질 농부의 교육 목적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빈곤층, 피억압층, 이민 노동자, 전 세계의 공장 노동자,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의무시하지 못하도록 교육받고 있는 모든 인간의 교육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 해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교육, 흑인 연구, 여성학, 이중 언어 프로그램 등이 나타났다. 해방교육론자와 자유교육론자는 학생의 정신을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지만 해방교육론의

목표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양자는 ‘정신의 자유’ 라고 하는 도덕적 교육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구분 할 것이다(Fenstermacher, Soltis, 1992).

Freire에게서 가르침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 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 가 의미하는 바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권위가 배제된 수평적이며 평등한 관계 맺음이며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주체로서 마주한 현실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성찰해 현실에 관한 앞을 도달해 가는 것이다. 교수는 학습자와 함께하는 공동 탐구 적로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교수의 역할을 대화의 장을 만들고, 대화를 이끄는 것인데 이 대화에 담긴 철학적 의미와 학습자와 어떻게 대화하는가가 중요한 지점이다. Freire의 문제 제기식 교육에서 ‘대화’ 는 현실을 드러내는 필수 불가결한 인식 행위로 교수가 학습자와 함께 성찰하고 행동해 앞을 도달하는 방법이기에 교수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 목표나 교육과정은 보이지 않으며 교수는 단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김영미, 2017).

4) 자아실현의 지원

교수는 학습자들을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 이해 그리고 자기 수용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정 있는 사람으로 본다(박수연, 2001). 이를 치료자로서의 접근으로 보면, 여기서 교수는 공감적 인간이 된다. 정신치료, 인본주의 심리학, 실존철학 등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 해준다. 학습자들이 인격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을 통해 본래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달 시킬 수 있도록 교수는 노력해야 한다(Fenstermacher, Soltis, 1992).

치료적 교수 접근에서는 보면 ‘가르치다’ 의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교수, 즉 가르치는 일이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하는 일을 도와주고 지도 해주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교수가 준비해주지 않는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공부하고, 평가하는 일을 교수가 도와줄 뿐이다.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교수 목표는 학습자가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

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사람됨을 규정해가는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참된 사람이다((Fenstermacher, Soltis, 1992).

치료자로서의 접근에 있어서 가르친다는 것의 목적은 학습자를 진정한 인간,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치료자로서의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진정성은 개인의 의미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먼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의 머릿속을 다른 사람에 의해 선택되고, 조직되어 전해진 특정한 지식으로 채워주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학습자를 자신의 느낌, 생각, 그리고 사상에 유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영상 그리고 태도에 유의하게 한다. 치료자로서의 교수는 학습자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책에 있는 내용을 배우게 하는 지원체제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치료자로서의 교수는 학습자 특성에 직접적으로 맞선다. 학습자에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발전계획을 세우며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본다. 교수는 외적 근원으로부터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자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교수는 어떤 종류의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게 하고 학습자가 그 지식을 얻어 자신에 대한 개념을 높여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책임을 느낀다(박수연, 2001).

나. 현상학적 의미

현상학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직접적 경험’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경험의 내적 의미를 알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적 이해의 방법은 지금까지의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이해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한인경, 2002).

현상학은 주관적 경험을 관통하는 현상의 본질 보기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학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고 이해하는가를 학습하거나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현상으로 사람들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 그 자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개인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며, 현상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김향식, 2009).

일상생활에 대한 자연적 태도의 세계로 우리는 생활세계 내에서 존재하며, 생활세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학습과 삶은 상호 그 영역이 겹쳐진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학습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습과 삶의 불가분성을 염두해 둘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학습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기영화, 2000). 가르침 경험 역시 강사의 생활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강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강사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한다.

‘가르침’의 의미는 많은 인간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탐구하기 어려운 주제다. 다양한 교육적 현상 중 하나인 ‘가르침’의 의미는 당사자인 교수자가 가르침을 구현한 체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르침’이라는 현상 또한 그것의 시작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교수자-피교육자, 지식, 전달, 강의 등으로 표상되는 가르침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바뀌어 가는 시대에 여러 각도에서 다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영미, 2017).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 표현 안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고, 현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한다.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자체에 초점을 두고,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의식으로 전환되는지를 탐구하며,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대해 의식적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현상학이란 도구를 사용하며, 공유한 경험에는 어떤 본질 혹은 본질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본질들이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현상을 통해 상호 이해한 핵심적 의미들이다.

Moustakas의 현상학은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덜 초점을 두는 반면에,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Moustakas는 Husserl의 개념인 판단중지(epoche 또는 괄호치기)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에서 연구자는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경험을 가둔다. 따라서 ‘초월론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신선하게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15).

2.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

현상학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는 반드시 가르침이라는 현상을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이다. 연구자는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특징과 변화를 알기 위해서 연

구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행동은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란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 경험,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주경중, 2019).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6명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로 선정하였다. 강사들은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본인이 가르치는 일과 연관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나.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경험을 쌓은 후에 평생교육기관에 진입하고 있었다. 대부분 평생교육원에서는 강사의 관련 분야 경력 및 업적에 대한 심사를 통해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교 학사운영 기간과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 계절학기로 운영하며, 강좌 운영을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강좌개설 공모를 하고 있다. 공모기간에 강좌개설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에서 통과되어야만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강좌개설 신청은 신규 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동하고 있는 기존 강사들도 해당된다.

<표Ⅲ-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지원 자격 요건

-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가~라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강의 및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강의 및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다.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강의 및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라. 관련 분야 교육 및 연구경력이나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심의에 통과하였으며 현재까지 평생교육현장에서 가르침 경험을 실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 중인 6명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가르침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르침 경험이 학습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사 자신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 연구 참여자 소개

<표Ⅲ-2> 연구 참여자의 확정

강사	성별	연령	강의 경력	강좌 명	비고
강사 A	남성	70대	15년	한자지도사	
강사 B	남성	60대	8년	제주문화탐방, 오름 해설	
강사 C	여성	50대	5년	캘리그래피 지도사	
강사 D	남성	30대	5년	글쓰기	
강사 E	여성	50대	3년	공필화	
강사 F	남성	40대	2년	목공지도사	

강사 A : 강의경력은 15년차로 분야는 한자지도사이다. 사업을 하면서 한자 공부를 시작 하였고, 한자 관련 자격증을 거의 다 취득하였다. 사업을 정리하고 한자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자 교육을 시작하였다. 평생교육원에는 직접 찾아가 강좌개설을 요청하였으며, 강의시연을 통해 개설을 확정하였다. 현재까지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한자 강의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강사 B : 강의경력은 8년차로 분야는 제주 문화탐방, 오름 해설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주 관련 출판업을 20년 동안하면서 제주의 문화 및 생태, 환경 등 제주에 대한 책들을 제작하였다. 사업을 정리한 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름 해설 강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

의를 통해 사람들이 제주의 자연문화와 오름 해설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좌개설을 통해 평생교육원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강사 C : 강의경력은 5년차로, 강의분야는 캘리그래피 지도사이다. 강사가 되기 전에는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고, 방과 후 강사, 동아리 강사 활동도 같이 하였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캘리그래피가 성인들에게 취업 및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좌개설 신청 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사 D : 강의경력은 5년차로, 강의분야는 글쓰기이다. 처음부터 교육에 관심은 있었지만 먼저 작가로 등단해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강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였고, 글쓰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갔다. 사람들이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체계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원에 강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글쓰기와 소설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사 E : 강의경력은 3년차로, 그림을 좋아하고 전공인 공필화에 대해 잘 알고 싶어서 중국에서 대학원 석사까지 취득하였다. 처음 가르치는 경험은 경기도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공필화 강의를 시작하였고, 다시 중국에서 돌아가게 되면서 중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였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주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아 평생교육원에 강좌개설을 신청하였고,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강사활동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자신의 그림에 제주를 담고 있다.

강사 F : 강의경력은 2년차로 강의분야는 목공지도사이다. 아버지가 목수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목공을 배우게 되었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협회에서 목공예 대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난 이후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고, 제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목공 강의 제안이 들어와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단체에서 목공지도사 강의를 고정적으로 하다가 점차 평생교육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현재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에 분석해야 한다. 가르침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가르침 경험 과정에서 학습자와의 관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의 활동을 토대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절차는 평생교육강사에 대한 관련 논문, 학술지, 서적 등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인터뷰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일대일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Ⅲ-3> 인터뷰 질문

인터뷰 질문 내용

1. 평생교육원 강사를 하기 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요?
 2. 평생교육원 강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와 계기는 무엇인가요?
 3. 평생교육원에서 첫 강의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4. 강의를 진행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5.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보람된 강의는 무엇인가요?
 6. 강의에서 만나는 수강생은 어떤가요?
 7. 강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의 노력과 성장은 어떠한가요?
 9.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삶의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서 대화형식으로 참여자의 내면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중요한 수의 질문은 구조화하되 그 외의 질문은 비구조화하는 방법이다(박경은, 2018).

연구 참여자인 강사들에게 연구에 관련한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모든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은 개인별로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면담장소는 카페,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중요한 내용이나 주제어들은 연구노트에 기록하였고, 면담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은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메모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음 된 내용을 전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의 해석 등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둔 Moustakas(1994)의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된다.

Moustakas의 접근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의미 단위’ 또는 ‘주제’를 묶어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경험에 대해 조직적 기술, 구조적 기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알게 된다(Creswell, 2015).

<표Ⅲ-4> Moustakas의 자료 분석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먼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하라.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전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은 접어 두려는 시도로서 연구 참여자 쪽으로 초점을 둘 수 있다.
2단계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나서 연구자는 개인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며[자료의 수평화], 각각의 진술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루고,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3단계	의미 있는 진술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의미 단위’ 또는 ‘주제’ 라고도 부르는 정보의 더 큰 단위로 묶는다.
4단계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에 대해 경험한 ‘무엇’ 에 대해 기술하라. 이를 경험-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의 ‘조직적 기술(textual description)’ 이라고 부르면 녹취된 예를 포함한다.
5단계	다음으로 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대해 기술하라. 이를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 이라고 하며, 조사자는 경험된 현상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다.
6단계	현상에 대해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 모드를 통합한 기술을 하라. 이것이 경험의 ‘본질’ 이며 현상학적 연구의 궁극적 측면을 보여 준다.

출처 : Creswell(2015 : 229)

분석과정에 따라 면담이 끝난 후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으면서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은 여러 번 읽었다. 각각의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미 추출된 진술 중 반복되는 의미는 서로 묶고 연구 참여자의 표현이 최대한 나타도록 하였다.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총 3개의 연구 문제에 대한 7개의 주제(themes)를 도출하였으며, 관련된 주제를 묶어 3개의 주제 묶음(themecluster)으로 범주화 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에 대해 연구문제를 맥락, 내용, 의미로 구분하였다. 가르침 경험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강의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강사의 성장, 학습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르침 경험에 대한 맥락에서는 가르칠 분야에 대한 전문성 형성하기, 다양한 가르침 경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제를 묶었다. 경험의 내용은 학습자와의 상호관계의 중요성, 강사가 학습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가르침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가르침과 배움이 강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제를 묶어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1차로 형성된 인터뷰를 Moustakas(1994)의 자료 분석 절차를 통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 경험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해 3개의 연구 문제에 대한 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된 주제를 묶어 3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7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 묶음은 아래 표와 같다.

<표IV-1> 주제 도출 내용

연구문제	주제군	분류 주제
가르침 경험의 맥락	전문성 확보하기	1) 전문성 형성하기
		2) 다양한 가르침 경력 쌓기
		3) 평생교육원 강사 유지하기
가르침 경험의 내용	소통을 통해 성장하기	4) 학습자와 관계 맺기

		5) 학습자의 성장 돕기
		6) 전문성 신장하기
가르침 경험의 의미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기	7)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기

1. 가르침 경험의 맥락 : “전문성 확보하기”

가. 전문성 형성하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성은 분야 및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수준으로 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해당 교과목에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수행동이다(권영성, 2006). 강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의와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은 학습자의 성장과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놓인 성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실천 행위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김진화, 2003).

많은 강사들이 강의 분야에 대한 전공자이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성은 내부적 역량을 통해 갖춰지는 것도 있지만 학력과 전 직장 경력 같은 요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조형훈, 2015).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고, 전공을 했어요, 그림에 대한 활동을 한 거죠. 캘리그래피 분야 역시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캘리그래피도 디자인 영역에 들어가요. 타이포 그라피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 영역 안에 포함되는데 디자인과 서예 영역이 합쳐진 영역이에요. 그런 구성능력이나 많이 도움이 되었죠, 캘리그래피를 공부할 때에도.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습

자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거죠.(강사C)

강사C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로 대학 전공을 하였고, 전공 중 한 영역인 캘리그래피를 선택해 공부를 하였다. 디자인 전공이 캘리그래피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강사가 되어 캘리그래피를 가르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었고, 다시 중국에 가서 공필화라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공필화라는 것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한국 전통 왕실에서 화공들이 그렸던 그림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명맥을 잇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내가 한국 가서 그 그림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강사E)

강사E는 미술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공필화를 전공으로 전문성을 형성하였다. 강사E는 공필화가 한국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가르침을 통해 그림을 알리고,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문학, 소설가고요, 소설을 써서 등단했고,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그거 말고도 문예창작학과를 진학해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은 거죠. ... 제가 전문성을 쌓아야 하고 기초부터 해야 할 거 같아서 문예창작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전공을 하니깐 자격증도 자연스럽게 따라 왔죠.(강사D)

강사D는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문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형성하기 위해 문예창작학과를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학습 이론 등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전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강사가 되기 전에는 우선 한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깐 막히는 것이 있어서 전문 학원에 가서 강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자를 꾸준히 하다보니깐,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자 급수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시험을 보면서 차곡차곡 올라갔었죠. 처음 시험을 볼 때는 거의 2급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 후에 준1급 그다음 사범까지 취득했어요.(강사A)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대학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성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가르침 경험을 실천하고 있었다. 강사A는 한자를 좋아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처음 생긴 한자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은 거의 다 취득하였다. 강사A의 대학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자신의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한자에 대한 전문성을 형성하였다.

제가 출판사를 20년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제주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다루었고, 제주도에 대해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천에 대한 것, 식물에 대한 것, 한라산에 관한 것. 내가 쓴 건 아니고 늘 발행인이죠. 책을 만들면 난 항상 발행인이었으니까, 또 제주도에 대한 잡지 하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잡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2년 정도 버티다가 망했죠.(강사B)

강사B는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일을 통해 전문성을 형성하였다. 출판사를 운영 하면서 책을 발행하는 일을 20년 동안 해왔고, 제주에 관한 책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제주에 애정이 많아 직접 제주도 관련 잡지를 2년 동안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 작장에서 쌓은 경력이 제주도의 인문학,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공예 대해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분야로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공예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체계적으로 다시 교육을 받아서 이걸 내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있는 협회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웠죠.(강사F)

강사F는 부모의 영향으로 가르치는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공과 관련한 일을 안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목공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목공을 자신의 일로써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전문성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목공협회를 찾아가 목공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나. 다양한 가르침 경력 쌓기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되기 이전에 다양한 기관에서 가르침을 먼저 경험하였다. 강의 경험과 강의와 관련된 활동들은 평생교육원 강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력으로 작용되며, 가르침 경험들이 쌓여 교수법, 학습자와의 관계 형성 강의 노하우 등이 생기게 되었다.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한자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나서 이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으로 한문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원을 차리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 수강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군단 사무실로 찾아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학이 되면 방학 내내 한자를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자 준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임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공부를 했었죠.(강사A)

강사A는 한자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자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학군단 사무실의 제안으로 학생들의 한자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자 준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중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동아리 활동 교육에 참여하거나 도서관, 기관,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 강의 경험을 쌓고 있었다.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하였다.

2010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름을 답사하고 싶은데 오름을 해설하거나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걸 좀 해줄 수 없냐고 강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제안에 수락해서 2년 정도 강의를 진행 하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강사B)

전문성이 형성 된 상태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강사B는 그 제안을 수

락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강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반응이 좋았고, 강의 만족도가 높아 2년 동안 강의를 운영하게 되었다. 강사B는 강의 경험을 통해 강사 활동에 대해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자신의 삶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저는 2014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우연한 기회로 청각장애인센터에서 강의 의뢰가 왔어요. 소수인원에 대한 강의가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수화통역사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장애인 교육을 시작 하게 되었어요. ... 성인들은 실기 과정 전부 다 스스로 했어요.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으로 연결이 되게끔 했거든요. 목공강사 자격과정이라서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이 교육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강사F)

강사F는 평생교육원 강사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 단체의 제안으로 장애인 대상 목공지도사 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목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장애인을 지도하는 목공교육 강사로 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F는 여러 장애인 단체의 강의 경험을 통해 강사로써의 강의 경력을 쌓아 나갔다.

문예창작 교육으로 소설관련 강의는 2015년 도서관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소설 강좌로 8주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인 독서 관련 자격증, 독서논술지도사, 북크리에이터 등 바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글쓰기 교육에 있어 보수 교육 개념으로 한 게 있죠.(강사D)

강사D는 소설가로 등단한 뒤 도서관에서 문예창작 교육으로 소설관련 강의 제안을 받았다. 도서관 소설 관련 강의를 시작으로 학교,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 경험을 가졌다. 강의활동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글쓰기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다. 평생교육원 강사 유지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성을 형성한 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을 통해 평생교육원 강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강좌 개설이 확정되면 매 학기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강제성과 의무성이 없고 학습참여 여부는 물론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고, 교육내용에서도 다양한 학습자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공 되어지는 교육활동이다(구주형, 2017).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연구 참여자들마다 다양하다. 박경은(2018)은 연구 참여자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고 강사로서 현재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강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내면의 힘은 바로 자신의 결정과 강의활동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었다.

내 노하우와 내가 알고 있는 오름의 지질적인 얘기, 여기에 얽혀져 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 사람들의 이야기, 제주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가미해서 강의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주의 역사, 문화, 전통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강좌개설 신청을 했죠.(강사B)

강사B는 다른 기관에서의 강의 경험으로 자신의 교육 방법이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이 제주의 역사, 문화, 오름의 관심이 많아 제주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전에 강좌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제주의 문화 및 역사 탐방, 오름에 대한 강좌를 개설 하였다.

캘리그래피를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쳐보고 싶었어요. 그 동안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그걸 배워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즐기기는 하지만 직업적이든 뭔가 활동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가르쳐 드리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성인이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강사C)

강사C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캘리그래피 교육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평생교육원에 강좌개설을 신청하였다. 성인들은 학생들과는 달리 캘리그래피가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하며, 직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처음에 여기 올 때 평생교육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또 그 당시 학원을 하고 있었지만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찾아가 한자 지도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깐 한자가 어떻게 속성이 되냐고 반문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원장님 앞에 한자를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깐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강사A)

강사A는 평생교육원 강사가 되기 위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직접 찾아가 행정실 담당 직원에서 강좌개설을 요청하였다. 강의 시연을 통해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보여주었고, 이에 반응이 좋아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을 위해 직접 행정실로 찾아가 요청하기도 하였다.

일단은 소설 쓰는 것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설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중에 소설자체를 가르치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운영 해보니깐 소설 과정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강사 지원요건을 보니깐 평생교육원 강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개설이 되었어요.(강사D)

강사D는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글쓰기, 소설 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지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습자들이 글쓰기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강의 준비를 해야 하며, 보통 강의 전 날 하루 종일 준비하거나 짧게는 2시간 정도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2~3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전 준비는 필수이다.

학습자의 반응이 좋은 수업은 강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반면에 사전에 잘 계획된 교수설계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수업이다(나승일, 2004). 교육설계 능력에 따라 설계된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자아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아개념이 독립적인 평생교육의 성인학습자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교육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정민승, 2002).

김경숙(2006)은 교육의 진행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강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공한 교육과 실패한 교육을 비교하여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사와 학습자의 정서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사와 학습자간의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부는 해야죠. 공부 안하고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준비 하지를 않으면 내 스스로 만족이 안돼요. 강의 할 때마다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의 준비는 필수예요. 처음 시작해서 3~4년 동안은 매일 전날 답사를 했어요. 지금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에 대한 서적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수업 전날 저녁에 최소한 2시간 정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강사B)

강사B는 강의준비를 안하고서는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4년 동안은 수업에 필요한 오름 답사를 강의 전날에 무조건 다녔고, 지금은 필요할 때만 답사를 다닌다고 하였다. 매주 강의 주제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의 전날 사전 준비는 필수이며,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에는 무조건 수업 준비만 해요. 수업에 관한 것만 하고 자료 뽑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할 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하면 안돼요. 내가 시범을 보였을 때 수강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나서 수업에 임하면 편안하죠.(강사C)

강사C는 강의 준비를 위해 하루 전날은 무조건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확인하고 수업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였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강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면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학습자들의 반응과 수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한 후에야 수업에 임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습자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직접 예시를 작성해서 보여주거나, 강의 시연을 하면서 수강생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행동으로 이는 교수가 수업에서 질문이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기술을 강조하는 방법이다(권영성, 2006).

수업을 준비할 때 소설 구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지 예측하기가 힘들니깐 보통 2~3개정도 예비로 할 것들을 가져와요. 항상 매주 강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글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믿음을 주고 있어요. 15주 동안 매주 글을 써야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강사D)

수업 방법에 선택에 있어 강사가 자신 있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수업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최선의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경숙, 2006). 강사D 역시 수업 방법에 있어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업 구성을 해오지만 준비한 만큼 다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매 주 강의 구성을 겹치지 않게 새로운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의 전달 능력 및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 구성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 강의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창엽, 2019). 강의에 도움이 되는 교수 매체 선정 및 제작단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 제공보다는 핵심적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설명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인 효과적(나승일, 2004)이므로 영상매체, 시각 자료를 제공을 통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가 미디어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물이라든가 다른 작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 다른 작가들 활동하는 거 글씨 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애인이지만 글씨로 성공하신 분들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을 해 드리거나 이렇게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강사C)

강사C는 영상매체를 통해 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다른 작가의 작업 영상도 보여주기도 하며,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칭찬이라는 도구도 사용하고 있었다.

강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강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강의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학습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나승일, 2004). 그러나 평생교육은 학교와는 달리 학습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첫 강의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강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기도 하며,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처음에 강의계획을 짰을 때 막연했어요. 소설을 쓸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소설은 이런 순서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강생의 실제 능력치랑 살짝 벗어나서 작성 했던 거 같아요. 그게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강의계획서를 올리긴 해도 매 학기마다 조금씩 달라요.(강사D)

강사D는 강의 계획서를 학기마다 작성하면서 항상 학습자의 실력에 기대감을 갖고 높은 수준으로 작성을 하였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현재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변경한 내용으로 강의 계획서를 수정해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계획서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강사와 학습자간의 일종의 약속이므로 실제 수업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나승일, 2004).

2. 가르침 경험의 내용 : “소통을 통해 성장하기”

가. 학습자와 관계 맺기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를 처음 만날 때 학습자들이 자신이 준비한 강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할지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자와의 관계 형성은 교육효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학습자들과 처음 대면하는 첫 시간 수업은 중요하다. 첫 수업의 이미지는 이후 계속되는 수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승일, 2004).

평생교육이 효과적이고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는 학습자와의 벽을 허물고 동질감을 형성하여 상호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사는 자기소개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사의 자기소개를 듣고 학습자들은 강의를 잘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소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김창엽, 2019).

강의 운영에 있어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요. 강의 첫 시간에 동그랗게 서서 서로 인사하고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제주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강의를 해주니깐 너무 좋아해요.(강사B)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와의 상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강사B는 학습자와 소통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학습자에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를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제주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되며,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대학이라는 기관이잖아요. 처음에 엄청 떨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될까 라는 막연함이 있었고, 제가 비교적 젊은 편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긴 했어요. 여기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사실 정보가 없으니깐 어떤 분이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2~3주는 헤 뺐던 거 같아요. 어떻게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 같아요.(강사D)

강사D는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에 긴장을 많이 하였지만, 학습자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하였다.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연하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2~3주정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습자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강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굉장히 설레었고, 제가 민화와 한국 전통 세필 그림을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 외로 잘들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보람을 더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림이 잘 보급이 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강사E)

강사E의 첫 강의 경험은 ‘설레임’이다. 그 안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대감, 학습자들이 강의를 어렵지 않게 잘 따라 올지에 대한 걱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학습자들이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성과를 가지기 위해 학습자와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강의운영 방식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강의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 혜택들을 알려주었다. 유대감이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인관계의 질을 의미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수업 초기의 교수자와 학습자간 유대감 형성이 수업 과정의 성패를 예언하기도 한다(권영성, 2006).

글을 쓰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것을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메일로 코멘트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서 쓰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해보면 좋겠다고 해요. 일차적으로 소셜 쓰는 것은 외부에 내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죠. 못하겠다고 하면 일단 올려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자분들에게 코멘트는 길게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강사D)

강사D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글쓰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글을 쓰는데 부끄럽거나 쑥스러워 한다면 그 글에 대해 정성스럽게 코멘트를 해주거나 자신의 이야기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배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자기가 고마웠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글씨와 상품을 만드는 걸 가르쳐 들어요. 가방이나 거울이나 하여튼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선물할 후 있게 알려드리니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강사C)

강사C는 강의에서 배운 지식들이 학습자들의 실생활에도 적용되어 지인들에게 글씨를 선물해서 보내거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과목의 내용과 과정을 학습자들의 일상세계와 연계하는 것으로, 수업에 다루는 내용과 과정을 학습자의 학습경험과 연계시킬 때 학습자의 이해하기에 효율적이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권영성, 2006).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에서도 배움이 연계되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효과성 및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경험을 하게 되며,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 정도는 참여지속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강조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적절성, 다양성, 탄력성, 우수성, 독특성, 학습자 중심성 정도에 의해 평가되며, 이에 대한 만족 정도는 참여지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숙원, 2002).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는 질 높은 교육기관 경험을 통하여 참여지속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서비스와 교육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진희, 2016).

기억에 남는 건 많긴 한데 가끔 그 좋음을 떠나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막 몽쿨한 그런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굉장히 보람도 있고 기쁘더라고요, 학습자 중에는 오름 강의에 두 번 온 사람은 꽤 여럿이고 많게는 네 번 온 사람도 있어요. 나로서는 굉장히 반갑기고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강사B)

강사B의 강의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 오름을 다니면서 제주의 인문학을 함께 배우고 있었고, 학습자들과의 관계 형성도 잘 되어 있어 가르침 담론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적용되었다. 가르침의 목적에 있어서 학습자를 진정한 인간,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수용할 수 인간,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되게 한다(박수연, 2001). 이러한 강사B의 가르침 방법에 만족한 학습자 중에서는 15주 동안의 배움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강의를 신청하여 듣는 학습자도 있었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강사B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배움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최대한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중도하차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친 수강생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애정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글동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니깐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차

피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해요. (강사D)

강사D는 글쓰기 수업을 통해 15주까지 함께하는 학습자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며, 자신도 학습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먼저 작가로 등단한 선배로써, 글동지로써 자신이 그 길을 걸으면서 겪은 모든 것들을 알려 주고자 하였으며, 학습자들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강의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들끼리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서로 친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의 시간에도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학습자의 좋은 일을 수업동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은경과 현영섭, 2018).

강의를 하는 것에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고요, 그냥 와서 강의를 하고 학습자들이랑 함께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그러다보니 더 친숙해지더라고요.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성인이기도 하니깐 모임도 같이 해요. 그래서 원우회를 구성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모임에 가입하도록 해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강사A)

강사A는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시작하였을 때는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또한 학습자와 관계형성을 위해 강의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 참여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강사A는 학습자들과 모임을 만들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를 하거나 좋은 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수강생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웃는 얼굴로 3시간 지내다 가시면 그게 일주일 간 또 활력소가 되면서 자기 작품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다가 또 만나고 그분들끼리 사이좋게 담소하시고

그림에 관해 서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강사E)

학습자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의 그림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즐겁게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면 하였다. 그래서 강사E는 일주일에 한 번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함께 받는 학습자들이 이 시간만큼은 작품 활동도 같이 하고, 사이 좋게 답소도 나누면서 학습자의 삶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매 학기 강의를 마치면 책도 나오고 마지막 시간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이번 학기 강의에서 우리가 더 알고 싶었던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거 없었는지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아쉬운 부분은 다음 학기에는 최대한 적용하려고 해요.(강사D)

강사D는 강좌가 마무리할 때마다 학습자에게 15주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 여부를 물어보면서 항상 강의 내용을 점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학기 강의계획안을 작성 할 때 학습자의 피드백 부분을 참고해서 강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나승일(2004)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좀 더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 학습자의 성장 돕기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평생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강사는 학습내용과 방법을 학습자의 흥미, 관심, 가치에 연결시켜야 하고, 학습활동의 결과가 성인학습자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생활세계의 삶에서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수행학습을 사용해야 한다(김창엽, 2019).

우리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나한테 해설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과 소통이 잘되고 그 사람들도 만족도를 갖게 하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라고 하죠.(강사B)

강사B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학습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중에 자신과 같은 강사가 된다면 소통의 중요성, 학습자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삶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제가 도와드려 가지고 제대 미술학과 편입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소질도 있었고, 본인도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깐 그림 해봐라 길이 있다 가르쳐 드렸죠. 학원에서 배우고 1년도 안 되서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림 그리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요.(강사C)

강사C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넘어 학습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습자에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 영향으로 학습자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고, 강사C는 이러한 학습자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지금 학습자들이 거의 한 50% 넘게 전공자분들이세요. 물론 초보자분들도 계시지만 한국화, 디자인, 도자기 등 전공을 하셨거나 지금도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작업에 이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인형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분한테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강사E)

학습자들은 각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훈련 뿐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시도한다(구주형, 2017). 강사E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대부분 전공자이거나 본인의 작업에 있어 이 그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자신의 강좌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학습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적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김애련, 2004).

소설을 쓰면서 제2의 인생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소설가는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안하고 삶이라고 보거든요. 삶의 방식이 소설가면 딱 좋겠다 라고 말해요. 항상 새로운 삶을 보고 거기다 쓰고, 그래서 뭔가 완성된 원고를 뭔가 내보고. 나중에 제2의 직업은 돈의 구애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글쓰기 관련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 중에는 플랫폼에 연재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등단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강사D)

강사D는 소설을 쓰는 이 행위가 나중에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학습자들이 소설가 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세를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 근데 수강생분들 중에 우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시면서 모든 상념이 없어질 정도로 집중이 잘 되서 하는 동안 너무 좋다고 그래요. 위로가 되고요, 작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붓 한 번이 쌓여서 나오는 그림이다 보니깐 만족도가 높아서 좋아하세요. 성취감을 많이 느끼세요. 저는 그래서 세필 그림을 하면서 정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강사E)

강사E는 그림을 통해 학습자와 공감하게 된다. 학습자는 프로그램 안에서 작품 활동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림에 집중 할수록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작품 활동만으로도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그림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어질프게

배우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이걸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강의에 참여 했으면 좋겠어요. 목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본인 것이 되고, 성공해도 본인 것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실습을 하면서 틀린 것은 절대 고치지 말라고 해요. 다음 작업할 때 틀린 것을 보고 다 시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요.(강사F)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이고 배우고 싶은 강좌에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었다. 강사F는 목공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무조건적인 성공도 좋지만 실패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다. 목공을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절대 고치지 말라고 안내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실수가 반영된 작품은 교재가 되어 다음 작품을 작업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의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제2의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강의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자지도 강사를 양성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한자 1급 또는 한지지도사, 훈장을 따고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강사A)

강사A는 한지지도사 자격 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 후에 학습자들은 방과 후 강사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습자들은 서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함에 있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평생교육원을 통해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자격증 자체가 강사 자격증이에요.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초등학교 일일체험, 방과 후 교사 이런 정도밖에 안하지만 나중에 시청에 또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 센터의 프로그램 목공 강사로 참여할 수가 있죠. 이거는 강사와 기술 자격증을 같이 접목시킨 거라 기술도 있으면서 강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강사F)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학습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목공지도사 과정은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이후의 삶 또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학습자들의 참여가 많다고 하였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니깐. 그때도 아마 모집을 하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을 거 같아요. 요즘 65세이면 다 정정한데, 60세가 되면 다 퇴직하잖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맨 처음에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우리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강사B)

강사B는 학습자들이 오름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미래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들이 제일 먼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배움을 통해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일자리 또는 취업에 있어 학습자들은 이미 학습을 하면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참여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은퇴 이후에 노후에 하고 싶어서 계획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퇴가 가까워지니깐 다양한 것을 배워서 실생활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도자를 따면 같은 더 나이 있으신 분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실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노인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르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나 이런 측면에서요.(강사C)

강사C는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에서 배운 지식들이 나중에 노인교육, 사회복지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거나,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은 직업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제2의 직업도 될 수 있고, 취미활동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으로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술에 대한 재능기부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 같아요. 여성단체, 장애인단체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 거죠.(강사F)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서 은퇴이후의 삶 또는 새로운 삶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며,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 등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 학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장 및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르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능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전문성 신장하기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배우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가르침 경험은 연구 참여자와 학습자 모두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배우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신의 분야에서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지식, 정보 등을 알거나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신나민(2004)은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현장에서 학습자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수강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동시에 강의기술이 뛰어난 강사이다. 전문성 외에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유머를 사용하고, 표정관리를 잘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강사의 인성 부분이 효율적인 성인지도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영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학습자들과 같이 발전해나가는 거죠. 신선하게 전혀 그쪽 분야도 아니지만 가르쳐 드린 것에서 창작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 소스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배우게 되요.(강사C)

강사C는 강의를 하면서 학습자들이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평생교육에서 만난 학습자들과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강사C와 학습자들은 창작하는 데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깐 이걸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스스로 결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느끼고 있다가 내가 이런 결정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던 고정관념을 어느 순간 가르치면서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치고 그림에도 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학습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강사E)

강사E는 강의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강의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며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사E는 작품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영향을 받았다. 항상 해야 하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듣고 자유롭고 편안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받았다.

평생교육원 들어와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한자를 아니깐 중국어도 쉽더라고 요. 한자를 아니깐 글자는 똑같은데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어가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고 중국어를 공부해서 중국어 국제공인 1급까지 취득했어요.(강사A)

강사A는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문성을 형성하였고, 한자지도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한자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강사A는 한자 분야에 있어 전문가가 되었지만 점차 학습을 확장하여 중국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어에 대한 전문성 형성으로 인해 ‘중국어 간체자’ 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캘리그래피 관련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회를 많이 했어요. 개인전도 했었고, 캘리그래피에 필요한 전각 과정을 서울에서 자격증 과정으로 배웠어요. 도장만 따로 배웠고요. 인사동에 가서 필요하다 싶어서 배웠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배워야지만 가르치는데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를 해야 해요. 강사가 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래야 학습자들이 믿고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강사C)

강사C는 강의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까지 찾아가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왔다. 강사C는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만 학습자를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사C는 삶의 질적 변화 즉,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욕구는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조형훈, 2015).

제가 옛날 화공들의 그림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화공들이 그렸던 문인화, 서예도 같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그림에는 제주를 그림 속에 넣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강사E)

연구 참여자는 경력을 쌓기 위하여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강의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강사E는 강의를 위해서 자신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강사로써 삶과 작가로써 삶이 강사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2020년도 2학기 끝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2월 되니깐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서 꾸준히 하게

됐어요. 콘텐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거나 늦으면 2주엔 한 번씩 올려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죠. 내가 이런 방법으로 강의 전달을 하니깐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하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강사A)

강사A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현장 강의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강의 운영을 하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구성 및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자에 대해 쉽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 가르침 경험의 의미 :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들기”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삶의 의미에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인지, 자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따라 삶의 목표를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제적 요인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감,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의가 끝나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이후에도 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도 연구 참여자와 학습자는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학습자가 평생교육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강의가 끝나 나가게 되어도 연구 참여자와의 유지되거나 또는 배움이 필요할 때 다시 평생교육원 울타리로 들어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있어서 배움과 가르침이 자신과 학습자의 성장에 의미가 클 것이다. 결국에는 연구 참여자의 성장이 바로 학습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튜브를 시작하니깐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 막상 해보니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어려운 한자 공부도 했는데. 그렇게 뭐든지 하면서 즐기자, 우리가 보면은 ‘지지자 불역호지자, 호지자 불역낙지자’ 라는 말이 있듯이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나

즐기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강사A)

강사A는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강의를 넘어 이제는 유튜브를 활용한 한자 강의를 제작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해 온 강의 경험을 토대로 유튜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즐기면서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강의 역영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평생교육원 강의 운영 방식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내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졌어요. 나도 은퇴할 나이, 노인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일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었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대를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골고루 만나게 되고, 내 삶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꾸준히 운동하니깐 얼마나 좋아. 적당히 공부도 하게 되고, 적당히 긴장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 늘 새로운 사람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듣고 하니깐 내 삶이 윤택해졌어요.(강사B)

강사B는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은퇴할 시기이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원 강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은퇴에 대한 고민, 노년에 대한 고민 보다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오름을 다니면서 운동하고, 강의 준비를 위해 항상 공부해야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이 굉장히 가치 있고 윤택해졌고 하였다.

수업준비하면서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몰두해서 하니깐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강사C)

강사C는 강의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를 만나 지식을 전달하고, 강의를 끝난 후에도 학습자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하거나 작가로 활동했을 때 보람이 크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

른 성취감은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항상 강의 준비는 철저히 하게 되며, 강의 방법, 강의 내용 등에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강사 활동을 통해 자신도 성장하게 되지만, 자신의 성장이 학습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저는 궁극적으로 창작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해야 수강생에게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제 멍잡이예요. 제 작업이 되게 힘들면서도 글을 쓰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요즘에 어떻게 써야 하는 거고 쓰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내가 느끼고 있어야 얘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미가 있다면 하면 거기에 의미를 뒹요.(강사D)

강사D는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의 작품 활동 역시 꾸준히 하고 있었다. 자신의 원래 직업인 작가의 역할을 잘 해야만 학습자에게 작가에 대한 정보 및 글쓰기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강사D는 강사로써의 삶과 작가로써의 삶을 잘 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학습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사 자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안에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강사 활동 없이 혼자 작업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깐 배우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 작품을 보고 배울게 있어야 하니깐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는 거죠.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저처럼 그림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전시회나 모임이나 스케치 활동을 병행해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강사E)

강사E는 강사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작가로써 매너리즘에 빠졌을 것이고, 그림의 즐거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니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더 높이고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작품이 학습자들에게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

다.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배움으로 연결되는 것과 학습자와 함께 작품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강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며, 강사의 삶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작년에 수업 받으신 분이 저한테 수줍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주문인협회 신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등단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완성해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코멘트를 달아드리긴 하거든요. 이런 점은 아쉬운데 한번 고쳐보시죠.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목표를 위해 작가로 등단을 하던지 책을 내던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장편소설을 완성하신 분도 계세요.(강사D)

강사D는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학습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강사D에게 조언을 얻고, 자신의 원고를 보내 서평을 하거나 아쉬운 점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배움이 다시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신청해 다시 듣기도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가르침 경험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가르침의 목적에 따라 가르침의 행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가르침에 대한 담론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존재하며, 접근 방식 혹은 관점을 달리할 때 가르침의 의미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의 연구 문제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가르침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비형식교육기관으로써 형식기관에서의 학습에 관한 접근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학습 환경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평생학습의 토대로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21세기 학습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김은영, 김현진, 2014). 또한 성인학습자는 의미 있는 학습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비형식교육의 수업 내용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학습자의 요구 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학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신은경, 현영섭, 2018).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전공, 대학원, 자격증 취득, 전 직장 경력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갔다. 전문성을 형성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먼저 가르침을 경험하였고, 강의 경력의 축적은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심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가르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먼저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성인학습자 대

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되기 때문에 가르침의 의미가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적용되었다. 관리적 접근에서의 모든 특성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학생의 학습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학습이다(한인경, 2002). 이것은 학생들의 성적, 대학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은 지식형식의 입문과 실천전통의 입문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접근에서는 안 된다. 평생교육에서의 가르침의 의미는 학습자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며, 평생교육원이라는 울타리 안팎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르침의 의미는 의식화로서의 교육과 자아실현의 지원에서 연구 참여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가르침은 관점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교육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강의 분야에 맞는 효과적인 강의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신은경과 현영섭(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수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친밀하고, 자유롭고,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아개념이나 지식 등의 변화 추구, 학습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법 활용,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되는 수업 내용의 구성 등이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수단, 돈을 벌기 위해서 강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습자와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평생교육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및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하거나 제2의 삶,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혜인(201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평생교육을 더 찾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직업의 기회를 갖기 위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에게 교수자이면서 조력자, 촉진자, 자문가 중개로 때로는 학습의 변화를 촉진하는 멘토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시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문 분야 이외의 학습자와 서로의 삶의 의미를 나누어 갖는 상담자, 조언자의 역할 및 학습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경연, 2016).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안에서 자신의 삶이 매우 가치가 있고, 운택해진다고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발견한 부분은 강사와 학습자의 동반 성장과 상호작용이며, 다른 점은 현재 강의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 자신의 전공과 자격증 취득, 전 직장 경력 등이 연관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끊임없는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학습을 촉진 시킬 수 있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 수강 여부를 결정하고, 강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의 강의 만족도와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형성하였다. 학습자와의 관계, 지속적인 배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강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학습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가르침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의 전문성, 적절한 교수법의 적용, 학습자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자아개념이나 지식 등을 추구하며,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활용,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에 따른 수업 내용의 구성 등 역시 중요하다.

2. 결론

이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가르침 경험을 통한 의미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전문성 형성 및 가르침 경험의 의미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부 전공, 대학원, 자격증 취득,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형성하였고, 다른 기관 및 센터에서의 가르침 경험을 통해 강의 경력을 축적시켰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지식이나 기술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로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석 및 개발이 필요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실시한 후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신용주, 2017).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획해야 하며(최정연, 2020), 교육방법, 강의 전달, 학습자와 상호작용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는 가르침 경험으로 학습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자신의 작품 및 경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성장은 곧 학습자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 역시 성장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삶에서 가르침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학습자와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삶은 평생교육현장 안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가르침 경험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형성 및 강화해야 하며,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가르침 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가 평생교육원 울타리를 넘나드는 것으로서 연구 참여자와 학습자와의 교육적 관계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강사의 가르침을 위한 전문성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사 개인의 차원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 평생교육원 강사에 대한 보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훈, 한상훈, 구주형(2016).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340-350.
- 교육부(2019).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구주형(2017). 성인교육자의 교수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권대봉, 박지혜, 박진영, 유기웅, 현영섭(2017). 평생교육의 세 가지 지평: 기반·실천·가치. 서울: 박영스토리
- 권두승(2006). 성인교육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두승, 조아미(2016).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권영성(2006). 대학의 강의식수업에서 교수의 효율적인 교수행동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권인탁, 임영희(2011). 대학평생교육기관 운영체제의 요구분석과 시사점. 교육중합연구, 9(3), 177-211.
- 기영화(2000). 성인교육의 일상학습 개조. *Andragogy Today*, 3(1), 36-61.
- 김경숙(2006). 평생교육 교강사가 학습만족도 및 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강사의 이미지와 강의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세진(2010). 대학 평생교육기관의 아카데미 캐피탈리즘 현상 분석 연구: C대학 산업교육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애련(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영미(2017). 시민참여교육 교수자의 가르침 경험의 의미 탐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김영화, 전도근(2007). 평생교육강사의 직무분석. *Andragogy Today*, 10(3),

63-86.

- 김은경(2017). 평생교육 강사의 경력별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21), 709-725.
- 김은영, 김현진(2014). 형식교육과 비형식학습 통합 학습환경 사례의 설계 특징
탐색, 14(1), 241-252.
- 김은임(2017). 평생교육자의 핵심역량이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지혜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2017).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에 대한 평생교육교수자와 성인학습
자간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2006).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업무 중요성과 수행
정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진화(2003). 평생교육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직무의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9(2), 219-247.
- 김창엽(2019). teaching과 learning의 어울림을 위한 성인교수학습의 이론과 실
제. 경기: 공동체.
- 김향식(2009).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승
실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2008).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와 교육기관 관련요인과
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나승일(2004).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 민혜인(2018). 평생교육 참여자 특성에 따른 교육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학교 대학원.
- 박경연(2016). 학습자의 참여특성에 따른 평생교육교수자 역량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경은(2018). 평생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경험 의미 탐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
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박근미(2015). 평생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이 성인학습자의 만족과 참여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송이(20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연(2001). 가르치는 것(Teaching)의 세 가지 접근. 교육과학연구, 32(1), 107-128.
- 방희봉, 이은상, 박하진(20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6), 317-336.
- 배은자(2013). 평생교육강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정현(2003).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마케팅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보준, 서명환, 신성철.(2015). 평생교육론. 경기: 공동체.
- 송영경(2015).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송창엽(2017). 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동기 유형별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송혜영(201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나민(2004). 효과적인 성인지도를 위한 실천적 전략. 평생교육학연구, 10(2), 1-23.
- 신용주(201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울: 학지사.
- 신은경, 현영섭(2018).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조건. 교육문화연구, 24(2), 241-266.
- 신은경, 현영섭(2019).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의 하모니 효과: 비형식교육 적합성, 무형식학습, 학습가치, 학습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HRD 연구, 15(1), 101-130.
- 신은정(2009).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배경요인 및 학습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진옥(2019). 대학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 참여 동기가 학습자 만족 및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오석창(20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평생학습대학원.
- 이권재(2014). 기업 사내강사의 강의경험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숙원(2002). 한국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옥경(2013). 평생교육 담당강사의 자질에 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존안(2016).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희(2016).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에서 교육기관 경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한나(2013). 학생의 배움을 통한 교사의 가르침의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해주(2010). 외국사례를 통해 본 대학평생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학습사회, 6(1), 1-24.
- 정민승(2003). 평생학습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사: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8(2), 41-59.
- 정복임(201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의 뉴패러다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정주영(2012).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개발 연구. 수산해양교육학회지, 24(2), 201-223.
- 정희석(201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만족도 및 참여지속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형훈(2015). 기업교육 전문강사의 삶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강의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혜정(2019). 한국·미국·영국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경중(2019). 프리랜서 기업교육 강사의 성공적 경력전환 학습경험 사례분석.

-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경선(2021). 평생교육강사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전문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운실(2004).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 발전 모델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0(4), 47-86.
- 최정연(2020). 평생교육환경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한상훈(2007).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7(2), 355-374.
- 한인경(2002). ‘가르침’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 황점희(2015). 성인학습자 인식하는 교수행동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홍미례(2002). 대학성인평생교육 발전과정과 운영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홍은숙(2007). 교육의 개념: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Fenstermacher, G. D. & Solitis, J. F.(1992). 가르치는 일은 무엇인가?(이지현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저 1994년 출판).
-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원저 2013년 출판).

A B S T R A C T *

Meaning of Teaching Experience of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 Focused on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Song, Mi Rim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teaching experience that instructors at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have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se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what context do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experience teaching? Second, what do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experience while teaching? Third, what is the meaning of the teaching experience of the instructor at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order to analyze the research problem, 6 instructors from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were selected a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June, 2021.

research participants. After collecting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data were analyzed by Moustakas of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7 topics for 3 research problems were derived, and related topics were grouped and categorized into 3 subject groups.

In order for research participants to practice teaching at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they must first form professionalism. The qualification to operat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s granted only when expertise in the relevant field is formed. After entering the institution, he knew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so he was always thoroughly preparing instructors for learners. In addition, for growth, he continued his career and work activities or expanded his learning with new study. Accordingly, the study participants expressed satisfaction in general as their life as a instructors was also related to their daily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ter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as a instructors, he formed his professionalism through undergraduate majors, graduate school, certification, and previous work experience, and accumulated teaching experience through teaching experiences at other institutions and centers.

Second, it was necessary to analyze and develop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as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t was designed with contents that are practically helpful to learners, and it was recognized that teaching methods, lecture delivery, and interaction with learners were important.

Third, the instructors of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had the teaching experience to grow together with the learners. As life goals become clear, they focus on improving their careers, and

the growth of these instructors is also affecting the growth of learners.

Fourth, teaching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life of an instructor at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not only learners but also institutions. Even after the lecture is over, the relationship with the learner is maintained, becoming a mutually helpful existence, and it has changed into a valuable life in which teaching and learning are always present.

As described above, from the research results, instructors and learners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are growing together, and this growth has been linked to another learning. So, it was found that teaching and learning are moving in and out of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the relationship with learners is continuing.

Therefore, in order to form and develop the expertise of instructors at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tructors at the individual level as well 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key words :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 of Lifelong Education, Teaching Experience